

펄프종이기술이 만난 제지인

70년의 기술과 신뢰로 펄프제지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무림그룹 이도균 대표

『펄프종이기술』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무림의 이도균 사장님을 만나 무림이 걸어온 길과 미래 비전, 그리고 제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도균 사장님은 『제지공정공학: 기초와 응용』의 발간을 적극 지원하여 한국펄프종이공학회가 국내 펄프·제지 기술의 체계화와 인재 양성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제지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이 사장님은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제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림은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펄프·제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펄프몰드와 나노셀룰로오스 등 미래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생산 과정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7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 사장님은 청년 제지인들에게 탄탄한 기초와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도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펄프종이기술: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펄프종이공학회와 함께 전문 교재인 『제지공정공학: 기초와 응용』을 발간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출판사업에 함께한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학생과 현장 기술자들에게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요?

“축적된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할 교육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도균: 안녕하세요. 뜻깊은 계기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제지산업은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특성과 공정을 담은 국문 전문 교재는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학생과 현장 기술자들이 우리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무림은 대한민국 제지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산업 발전을 위해 쓰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학계와 현장의 지식을 산업 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만드는 이번 사업에 힘을 보탠 것도 같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제지공정공학 집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모아 헌신해 주신 열네 분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의 교육 기반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학생들에게는 제지공학의 기본을 익히고 진로를 찾는 길잡이가 되고, 현장 기술자들에게는 경험을 이론과 연결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배운 제지인들이 우리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펄프종이기술: 항상 제지산업과 기술인의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에 대한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림이 이어온 지원 노력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술 경쟁력을 만듭니다.”

이도균: 제가 경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펄프·제지산업은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설비에 투자하는 만큼 사람에도 투자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우고 성장하는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인재 양성에는 긴 안목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 분야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림은 2018년부터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해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 특화 전공인 P&P화학공학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입니다. 해당 전공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울산공장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을 실제 공정과 연결해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수 졸업생에게는 무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인재들이 산업 곳곳에서 활약할 때 펄프·제지산업 전체의 역량도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미래 제지산업을 이끌 사람을 잘 키우는 것도 무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앞으로 학회와 대학, 산업계의 산학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무림이 맡고자 하는 역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는 산업 공통 과제를 모으고, 대학은 연구를 통해 해법을 찾으며, 기업은 연구 성과를 산업경쟁력으로 실현해야”

이도균: 앞으로의 산학협력은 우리 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시장과 환경 기준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면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학계와 산업계가 역량을 모아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회는 산업의 공통 과제를 모으고, 대학은 연구를 통해 해법을 찾으며, 기업은 현장의 경험을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긴밀해질수록 연구의 깊이와 산업적 활용 가치도 높아집니다.

펄프·제지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협력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제지공학에 소재·환경·에너지·바이오 등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더해지면 우리가 가진 기술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회가 이러한 교류를 이끌고 산업의 미래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무림은 제지산업을 오랜 시간 이끌어오며 기술과 노하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펄프부터 종이까지 직접 생산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의 과제를 학계와 공유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과 생활 속 쓰임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꾸준히 추진할 때 성과를 냅니다. 무림도 학계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펄프·제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탈 플라스틱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종이의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무림의 노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와 펄프의 친환경 가치를 제품과 생산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도균: ‘탈 플라스틱’과 ‘탄소중립’은 제지산업이 마주한 과제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이와 펄프의 강점을 살려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이와 펄프는 재생 가능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제품의 구성과 처리 조건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생분해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기능과 품질까지 갖춘다면 생활과 산업 곳곳에서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제품의 전 과정에도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원료 확보와 생산에 사용하는 에너지부터 사용 후 처리까지 살펴야 합니다. 제품의 환경적 장점과 생산 과정의 개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림이 추구해 온 ‘가장 깨끗한 종이’에도 이러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원료와 공정을 개선하며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아왔고, 종이 원충재와 생분해 종이컵, 종이 물티슈 등으로 쓰임을 넓혀왔습니다. 소비자가 품질과 편의성을 누리면서 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변화도 지속됩니다.

제지산업은 사회의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무림은 종이의 쓰임을 넓히고 생산과정의 환경부담을 줄여, 종이와 펄프의 친환경 가치를 제품과 생산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펄프몰드와 나노셀룰로오스(CNF),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무림의 미래 성장 전략과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펄프에서 미래 소재산업의 길을 찾겠습니다.”

이도균: 무림의 성장 전략은 명확합니다. 펄프·제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소재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출발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펄프몰드와 나노셀룰로오스(CNF)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펄프몰드는 포장재 시장에서 펄프의 쓰임을 넓히고, CNF는 섬유의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림은 각 소재의 강점을 실제 시장 수요와 연결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림 울산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는 원료부터 소재 개발과 생산까지 연결하는 무림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과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산업의 파트너들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입니다. 신규 고효율 회수 보일러를 통해 펄프 공정에서 발생하는 흑연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약품을 회수해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화석연료 의존도와 환경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과 투자는 긴 시간과 꾸준한 노력을 요합니다. 무림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단단히 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가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무림에 이 이정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의 신뢰, 이제는 글로벌 기준과 품질, 가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도균: 창립 70주년은 무림이 쌓아온 경쟁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이정표입니다. 무림은 대한민국 종이산업의 성장과 함께하며 기술과 품질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부심이며, 더 높은 기준에 도전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무림은 현장을 지켜온 임직원, 제품을 선택해 주신 고객, 함께 성장한 협력사와 지역사회, 지식을 나눠 주신 학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무림을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가 앞으로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은 기업의 연혁보다 지금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무림은 글로벌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기준으로 기술과 품질을 높이고, 환경적 가치까지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기업의 역사에 걸맞은 경영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과 함께 기업의 판단과 행동도 신뢰받아야 합니다. 책임 있게 경영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입니다.

앞으로 무림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제지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쌓아온 강점을 발전시키고 변화에 필요한 결정을 실행해, 70년의 저력을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펄프 제지산업을 공부하거나 이 분야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 제지인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비 제지인 여러분의 질문과 도전으로 또다른 가능성을 열어갑시다.”

이도균: 펄프 제지산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산

업이지만 앞으로 개척할 영역은 넓습니다. 종이가 익숙한 소재라고 해서 그 가능성까지 다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를 선택한 여러분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종이는 기록을 넘어 포장과 생활용품에 쓰이고, 펄프의 활용은 새로운 소재 분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원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커질수록 우리 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은 이러한 변화에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기본을 깊이 배우십시오. 원료와 공정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전공 밖으로 시야를 넓히기 바랍니다. 다른 산업이 어떤 소재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면 펄프 제지 기술의 새로운 쓰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깊게 쌓고 폭넓게 활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방식에도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저할

무림은 11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저탄소 종이 생산 기업으로서 친환경 종이 개발과 생산을 넘어, 그 가치를 소비자가 일상에서 이해하고 경험해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Wish Forest
Make a wish on a paper tree ornament
with **무림페이퍼**

소망이 실현되는 종이의 숲
Paper Forest: Where Wishes Grow

소망을 적으면, 종이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웃음이 되고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종이의 숲에서
소망을 담은 종이 트리를 만들어 보세요

깨끗한 종이로 세상을 이어가는 기업,
「무림페이퍼」가 함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종이인
이종은 무림이 시작했습니다.
한해나 몇 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ince 1956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885-0000000000000000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은 우리 산업에 필요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기업과 선배 제지인들의 역할입니다. 무림도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펄프·제지산업의 다음 모습을 만들어갈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펄프종이기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펄프제지산업의 미래를 이어갈 젊은 세대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대답: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